

## 백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량이 찢어진다

소리치면서 심장마비로 숨이 끊어져 죽었다.

“화(禍)란 만족을 모르다는 데서 비롯한다”는 노자(老子)의 말도 있다. 한비자(韓非子)도 이말을 인용하면서 사형선고를 받은 악질죄수도 참회에 따라 사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사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두고 화가 따라다닌다고 이르고 있다.

우리는 당장 눈 앞에 어른거리는 돈에 홀려서 슬며시 등 뒤에 다가오는 불행의 여신을 언제나 뒤늦게 보게 됨으로써 파멸의 종착역에 이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탐심(貪心)은 죄의 뿌리라고 했다.**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를 놓쳤다’ 이는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 내가 가진 것까지 놓쳤다는 속담이다.

또한 채근담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돈을 주면 돈보다 귀한 옥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는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옥을 주면 또 수효가 적다고 탓한다는 것이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쥐도 늘 부족하다.

이것은 거지근성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플라톤이 ‘전쟁과 혁명, 투쟁의 유일한 원인은 육체적인 욕망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갈파(喝破)했다.

그러므로 탐욕은 인생을 파멸시키고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는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가.**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는 속담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계속 상승하기는 쉬워도 절제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

지금 정치권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몇 십억부터 몇 천억원에 이르기까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정당 대표를 비롯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과 특히 청와대 최도술 비서관의 SK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으로 온통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 위기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물겠다는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져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

고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명예가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감옥신세를 지면서 자신의 인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사회가 어지럽고 미덕의 가치가 무너져 내릴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온갖 굶은 일로 술한 고생을 해서 평생 어렵게 모은 돈 수천억원을 선뜻 내놓은 주인공은 그 잘난 위정자가 아닌 신문사회면의 미담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할머니인 것을 볼 수 있다.

제 분수에 넘치는 욕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사는 분수에 맞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주어진 운명에 따라 차근차근 전진해 나갈 때 보다 값진 삶의 길이 열릴 것이다.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동물과 구별된다.

동물적 속성을 지닌 사람만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새삼 욕망의 끝이 어떻게 그를 파멸시키는 것인가를 이번 정치권의 금품수수사건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